

[로스쿨 소식]

## 서울대학교 로스쿨 65%가 고소득층... 전체 로스쿨 평균의 1.5배

-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 분석
- 3명 중 2명 고소득층... 전국서 최고
- 25곳 평균 45.5%보다 20%p 높아
- '취약층 기회 확대' 설립 취지 무색

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재학생 3명 중 2명이 가구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확인됐다. 전국 로스쿨 중 서울대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아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
로스쿨 평균(45.5%)보다 20%포인트나 많다. 월 소득이 1536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층(10구간) 재학생 비율도 53.2%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.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2명 중 1명은 소득 상위 10% 계층이란 의미다.

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'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'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대 로스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(소득분위 9·10구간·월 소득 1024만원 이상) 비율은 65.1%(278명 중 181명)로 집계됐다. 이는 전국 로스쿨 25곳 중 가장 높은 수치로,

〈서울대학교 정문 전경〉



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아 '취약계층의 기회를 확대한다'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매년 저소득층 재학생에게 40억~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.1%에서 올해 45.5%로 소폭 줄고 저소득층(소득분위 3구간 이하) 비율은 26.9%에서 28%로 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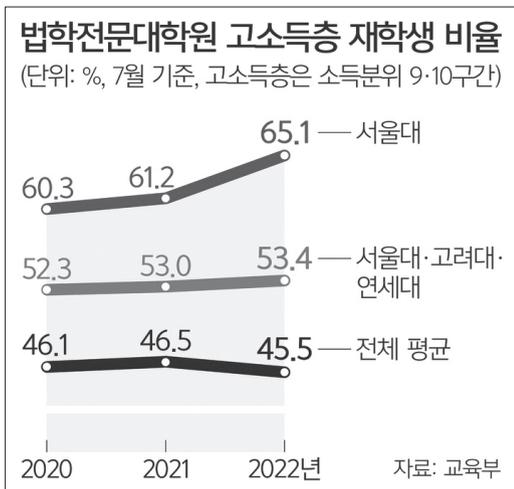
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간 고소득층 비율은 4.8%포인트 늘고(60.3%→65.1%), 저소득층 비율은 3.9%포인트 감소(19%→15.1%)했다.

안 의원은 “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.”며 “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.”고 지적했다.

소위 'SKY'대라 불리는 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3년 연속 50%대를 기록했다.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의 저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각각 24.6%, 25.2%로 전년보다 5.6%포인트, 2.7%포인트 높았지만 전체 로스쿨 평균(28%)보다는 낮았다.

이밖에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53.1%, 비수도권 대학은 35.3%로 지역별 격차도 컸다.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대에 이어 △아주대(62.5%) △이화여대(61.6%) △중앙대(60.2%) △한양대(57.4%) 등이 꼽혔다. △충북대 23.1% △원광대 26% △전남대 31% △부산대 33.8%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.

안 의원은 “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.”며 “저소득층에 대한 로스쿨 문턱을 낮추고 장학금 지원을 늘려 사회적·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조인이 되고 싶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


(출처/세계일보)